



사순 제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주님께서서는 돌아가시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사순 5주일, 5번째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사순의 재계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큰 희망을 품게 하는 초대이십니다.

‘열매’라고 하는 소중한 표현은 사도 바오로의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에페 5,9)

이 열매의 향과 맛을 느낀 사람들은 더욱더 구체적인 향과 맛을 찾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부활은 단순 죽음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이겨낸 것이 아닌 축복의 수고 이후의 삶에 새로운(본래의) 삶이 열렸다는 뜻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죄만 떠오르게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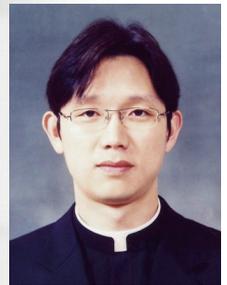
주님께서 당신의 수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에 눈과 귀를 여시고, 그곳으로 망덕을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마르 4,28)

오늘 1독서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예레 31,34)

주님의 자비(뜻)가 우리에게 저절로 열매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며 이 사순을 걸어가십시오.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 상평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예레 31,31-34
화 답 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 2 독 서	히브 5,7-9
복 음	요한 12,20-33

주일 진례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1년 3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되,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1. 한국 천주교회는 ‘백신 나눔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수원, 대전, 춘천 교구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요청을 받아들여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로 하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일환인 ‘백신 나눔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금을 모아 교황님께 보내 드려, 백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약 6만 원)을 봉헌할 수 있으며, 신자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2.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얀마와의 연대를 밝히는 성명서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 라자로 기념일’(7월 29일), ‘나렛의 성 그레고리오 아바스 학자 선택 기념일’(2월 27일), ‘아빌라의 성 요한 사제 학자 선택 기념일’(5월 10일),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 동정 학자 선택 기념일’(9월 17일)의 우리말 번역문을 심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사도좌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다.
4.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교리 교육 지침』(개정판)을 승인하였다. 교리교육위원회는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1997년에 발표한 「교리 교육 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을 토착화하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한국 천주교회 교리 교육 지침」(주교회의 2005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교리 교육 현실은 물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여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5. 2021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다. 도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과 거주 환경이 큰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과 이주민들이 겪는 불평등과 인권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다.
6. ‘세계 이민의 날’(9월 마지막 주일) 명칭을 보편 교회에 맞추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World Day of Migrants and Refugees)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7. 한국가톨릭사각장애인선교협의회 회칙 개정안과 월드와이드매리지엔카운터 한국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8.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설립 50주년 총회(2022년 5월 예정, 태국 방콕 대교구)의 한국 대표로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 대주교, 이용훈 주교(주교회의 의장), 유흥식 주교, 조규만 주교, 정신철 주교, 김선태 주교, 정순택 주교를 선출하고, 교체 대표로는 손삼석 주교를 선출하였다. FABC 총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9. 신임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원장 정연정 티모테오 신부를 세 가지 시복 안건(‘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안건,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을 위한 로마 주재 청원인으로 임명하였다.
10. 신임 주교회의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수원교구, 1990년 서품)를 임명하였다.
11. 주교회의의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주교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선임하고, 주교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참조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김진희 세레나 시인/ 가톨릭 문인회

아들이 사는 부산 아파트에 갔다. 마침 월요일 아침이라 분리수거 하는 곳에는 택배 상자를 비롯해서 전보다 3~4배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사실 요즘엔 나도 마트에 가기보다 택배를 더 많이 이용하긴 했지만 수거된 양을 보니 입이 떡 벌어졌다. 코로나 19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은 한 부분이겠지만 저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니 씁쓸했다.

1인 가구의 급증이나 세대의 구조적 변화로 점차 대면 관계를 꺼리는 언택트 마케팅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다.

처음 겪는 팬데믹이 길게 지속되자 나라와 가정 경제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생활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아 지금은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비대면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코로나19 이전의 시절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든다.

고백하건대, 그나마 갖고 있던 내 얇은 신앙심도 주일 미사 참석조차 어려워지니 내 속에 하느님을 잊고 산 지 오래인 것 같다. 그래도 본당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미사를 볼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나이 들수록 회개해야 할 것,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은데도 말이다. 언제나 고해실에 들어갈 때면 떨리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요즘엔 그런 떨림조차 마음속에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면서 돌아보면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마다 으레 기도를 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복잡한 출퇴근길에 묵주기도 몇 단을 드리다 보면 무사히 일터에 도착한다. 같이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평안을 기원하는 일 년의, 한 달을, 하루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써 일과를 마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제 긴장하며 지낸 일터를 떠났으니 일상의 간절함이 없어서일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나를 발견한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도 잊고 산다. 가족, 친지, 이웃 간에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이때 내가 나를 붙잡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더구나 믿음은 더 철저히 단단 해져야겠다.

늘 부족한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여성들이 쓰는 사회적 시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미국 뉴욕의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을 기리며 15만 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난 날을 기념해 1909년 미국에서 처음 선포된 여성의 날은 1975년 유엔에서 3월 8일을 공식 여성의 날로 선포하기까지 여성의 인간 존엄성 보장과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각국 여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덕택에 대부분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예년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지만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들에 관한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보면서, 나는 얼마 전 발표된 교종의 새 회칙 “모든 자매형제들 (Fratelli Tutti)”을 생각했다. 회칙은 사회교리의 3대 원리인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조성의 원리와 관련해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 교회 등 큰 기관이 시민 단체 등 작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상부 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관료주의적 상명 하달을 막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원리다. 교종은 보조성의 원리를 들어 대중운동을 지지하며, 이를 ‘사회적 시인’이라 표현했다. 마치 시 한 편에서 하나하나의 시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율과 의미를 만드는 것처럼, 자발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시어가 되고 행이 되고 연이 되어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기나긴 연작시처럼 서사가 생기고 이미지가 연결되고, 노래가 되며 사회적 연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 고통의 세상에서 여성들이 쓰는 ‘사회적 시’란 어떤 것일까? 여성의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즉 남성들이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겠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인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렌 시수, 뤼스 이리가레이는 남자들, 아버지들이 만들어 낸 세상의 상징 질서와 언어가 여성의 경험을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적인 글쓰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폭력적, 위계적 언어,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고 몸을 비하하는 언어, 나와 타자를 나누는 이분법적 언어 등이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언어이기에, 여성의 언어는 이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몸과 느낌에 집중하는 언어, 완결적이고 단언적인 언어보다 열려 있는 언어, 비결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글, 답보다는 질문이 더 중요한 글, 말의 운동성과 리듬감이 살아 있는 글, 유머, 슬픔, 고통의 정서, 애매모호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 남성들의 질서를 패러디하는 글 등이 이들이 말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이다.

나는 이렇게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몸으로, 여성의 언어로 쓰는 ‘사회적 시’를 우리 사회 여성들, 특히 두 그룹에서 발견한다. 한 그룹은 오는 4월 16일, 7주기를 맞지만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다. 세월호 가족들, 특히 어머니들은 참사 초기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지 상징적인 중심이 아니라, 운동의 주체가 되어왔다. 그들은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침몰의 원인이었던 규제 완화 폐기 등 투쟁의 쟁점들을 구체화하고, 국내외를 오가며 세월호 기억 물품을 전달하고 기억 공간을 형성했으며, 고통을 딛고 성장했다. 삶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성찰했으며,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해 반성했고, 세월호를 넘어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연대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에 저항

하고 있다. 혐오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온 이 어머니들에게 많은 어머니들이 “저도 엄마예요”라는 말로 화답했고 함께 울었다. 이 어머니들은 가부장제가 규정한 어머니들의 이상이 아니며, 아버지의 통제 안에 머물러 집에 안주하는 어머니들이 아니고, 출산과 양육과 돌봄에 헌신하여 아버지의 존재 밑으로 숨는 어머니들이 아니다. 이들은 이웃의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어머니들,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연대의 장으로 소환하는 어머니들이다. 어쩌면 이 어머니들은 예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을 닮았다. 성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른다. 수많은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거침없이 사회적 시를 쓰고 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미얀마의 여성들이다.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반군부 비폭력 시위에 여성의 치마, 속옷,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이 저항의 수단으로 등장했다. 군부의 전방위적 폭력에 맨몸으로 맞서 다시피 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타메인, 혹은 사롱이라고 불리는 여성 전통 통치마와 생리대, 속옷 등을 빨랫줄에 걸어 높이 걸어 놓는 것이다.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는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물건을 걸어 놓은 빨랫줄 밑을 지나가는 남성은 남성성과 힘과 명예를 잃고 불운을 맞는다는 미신이 있다. 현명하고 용감한 미얀마의 여성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시위의 방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타메인 혁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치마로 만든 깃발을 들고 여성운동과 반군부 폭력시위가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미신을 믿지 않는 젊은 남성들도 이에 부응하여 타메인을 몸에 두르고 시위에 나섰다. 총을 들고도 천 쪼가리 치마가 무서워 벌벌 기는 군부의 모습이 우리 시대 가부장 제도의 시대착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가부장제의 상징들을 패러디하고 비틀어 평화를 수호하는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미얀마 여성들의 사회적 시는 어떤가?

가부장제의 유물을 아직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여성들이 써야 할 사회적 시는 어떤 것일까? 교회가 여성의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를 위해 힘쓰고, 교회 내 여성의 지도력 또한 고민하게 되기를 염원하려면 어떤 시를 써야 할까? 우리는 여성의 언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성의 삶과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여성학을 얼마나 알고 있고, 여성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의 세상을 공부하는 여성신학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여성부제직에 대한 논의가 물꼬를 텃으니 연구도 여론 형성도 힘차게 일어나야 할 텐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미세한 희망을 무시하지 않고, 별 볼일 없다, 가능성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은유를 만들고, 언어를 다듬어 사회적 시를 써보는 것, 작은 움직임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시위대 보호를 위해 길가에 걸린 미얀마 여성들의 치마(트위터 캡처)



교구장 동정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법정 종로 회기

일시: 3월 25일(목) 15:00
장소: CBCK

교구 평협 정기총회 파견미사

일시: 3월 27일(토)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본당사목방문

일시: 3월 25일(목)
본당: 함양/ 안의신교

지구장 본당방문

일시: 3월 24일(수)
본당: 용잠/ 생림신교/ 수산/ 진례

교구/본당

청년 신앙강좌

일시: 3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주제: “신경: 계시와 응답”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교구 성경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신청: 3월 31일(수)까지
문의: 성경부 055·249·7026, 010·7479·7026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경숙(정혜 엘리사벳), 이성만(대건 안드레아)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마감: 3. 25.(목)까지
문의: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3월 기도 모임

일시: 3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3월 24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교구 평협 정기총회

일시: 3월 27일(토)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206차 ME주말 안내

일시: 4월 16일(금) 19:00~18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4월 9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기타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020년 11월 16일(월)~3월 31일(수)
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무료법률상담

일시: 3월 26일(금) 14:00(매월 넷째 주 금)

Viriditas "생명수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진주항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백합식품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령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내용: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방법: 대면 및 전화상담
 문의: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055·640·7724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불만합창단원 모집(‘세상에 외치다’)

불만합창단은 노래를 잘하기 위한 합창단이 아닌,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래를 개사하여 부르는 합창단입니다.
 대상: 창원시 거주 장애인 및 시민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55·247·5194



거창본당 제2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임무창(시메온)
 사목협의부회장(남성): 손경열(미카엘)
 사목협의부회장(여성): 백정향(글라라)
 총무재경분과위원장: 손경열(미카엘)
 기획홍보분과위원장: 고승환(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전례분과위원장: 곽명희(글라라)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정현정(이레네)
 시설분과위원장: 권숙찬(그레고리오)
 복음화분과위원장: 김현주(로사)
 구역분과위원장: 이영숙(글라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명숙(요안나)
 청소년분과위원장: 이흥영(스텔라)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직수여미사 및 수단 착의식



시종직 신학생



착의식 신학생

교회의 봉사직무를 받는 시종직을 수여하는 직수여미사와 수단 착의식이 3월 7일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교구 신학생 연구과 2학년 이창범(나자로, 구암동본당), 김진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문산본당), 장신영(요한 마리아 비안네, 옥봉동본당) 등 3명이 시종직 수여를 받았으며, 학부 4학년 임상영(토마스 아퀴나스, 사파동본당), 최민용(가브리엘, 용원본당) 2명의 신학생이 착의식을 하였다.

무엇이 신앙인가-최인훈의 『라울전』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각각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한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함께 랍비가 된 친구가 있다. 라울과 바울(사울)이다. 둘의 성격은 정반대여서 라울이 조심성 있고 신앙심이 깊은 반면, 바울은 팔팔하고 조급하고 불성실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해도 항상 바울이 이기곤 하였듯이 늘 운은 바울 편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험을 앞둔 날 바울은 기도를 올리고는 아무렇게나 펼친 성전의 한 부분만 외우기 시작했다. '통밥'으로 딱 찍어서 벉락치기 공부를 한 것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라울은 오기가 나서 딱 그 부분만 빼고 공부했지만 바로 그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라울은 '신의 사랑' 앞에서 언제나 바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삶을 한 치 한 치 세면서 살아가는 자신보다 '내기와 우연과 예언'에서는 언제나 바울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나사렛 고을의 천한 목공의 장남' 예수를 허황된 존재라 하며 그의 무리를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기를 일삼는다. 반면에 라울은 경전을 공부하면서 나사렛 사람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이며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로마 제국에 대한 모반의 죄로 고발할 것인지 따보자 그를 만난 적이 없기에 거부한다고 답하기도 한다.

『광장』으로 잘 알려진 최인훈의 초기작 『라울전』의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 신이 선택한 인물은 누구일까. 나사렛의 아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라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뜻밖에도 신의 선택은 바울이다. 왜일까. 라울은 지식으로써 예수에게 가까이 갔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라울이 나사렛 사람의 발밑에 엎드리기 위하여는, 단 한 걸음이면 되었고, 그 단 한 걸음은 반드시 필요한 '한 걸음'이었다. 라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 그의 괴로움이 있었다. 눈에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라울은 총독의 잔치와 교구장 모임과 제사에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것이 '보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저하며 예수를 찾아 나서지 못한 라울과 달리, 바울은 어느 날 총독에게 다음 희생자의 명부를 주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를 만난다. "사울아, 어디로 가느냐"는 말씀에 그는 주의 종이 된다. 주는 하고많은 무리 가운데 죄 많은 자를 골라 가장 귀한 종으로 삼았으니,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그 제목처럼 라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앙 앞에서 고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신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라울은 바울이 신을 영접했다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검으로 발견된다. 지식과 이성의 틀에 갇힌 인간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할 것이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나, 이 소설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뒷날, 측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 끝에 라울의 이름이 오고 갔을 때, 바울은 듣고만 있다가 끝에 차디찬 투로 그의 서간에 있는 저 유명한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옹기가 옹기장이더러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빚었느냐고 불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옹기장은 자기가 좋아서 못생긴 옹기도 만들고 잘생긴 옹기도 빚는 것이니"라고.